

연예

12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추석기획 | 명절 극장가 달굴 한국영화 3편, 주인공 3인을 만나다

추석 연휴의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세 편의 한국영화가 나란히 극장에 내걸렸다. 휴먼 코미디 '힘을 내요, 미스터 리'와 범죄액션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짜릿한 도박판의 세계를 담은 '타짜: 원 아이드 잭'이다. 각 작품의 주인공은 차승

원(49), 김상중(54), 박정민(32)이다. 올해 추석 명절은 “관객과 함께 보낼 예정”이라는 세 배우를 연휴 시작 전 차례로 만났다.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이들인만큼 각기 내놓는 영화의 개성도 다채롭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나쁜 녀석들: 더 무비'



'타짜: 원 아이드 잭'

“기억해야 할 이야기” “악당에게 진짜 한방” “후회 없는 마이웨이”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차승원



“대구 지하철 화재 모티브…사회 곳곳 고마운 분들 생각나 아버지 계신 곳에 별초하고 영화 잘 되게 해 달라 또 부탁”

배우 차승원의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웃음과 눈물을 동반한 이야기다. 명절 가족과 함께 보기에 안심맞춤이다. 차승원은 촬영 내내 “사회 곳곳의 고마운 분들을 향한 감사함을 느꼈다”며 “관객에게 그런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는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주요 축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차승원이 연기한 철수는 참사 당시 여러 생명을 구한 소방관이지만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지적장애를 갖게 된 인물이다. 그 앞에 존재를 모르면 딸이 나타나고, 둘은 대구로 향한다.

“장애와 결핍을 가진 아빠와 딸이 서로에게 조금씩 위안을 받고 힘과 사랑을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모두가 아파한 사고를 다룬다보니 처음 제안 받고는 ‘왜 내가 이 작품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아빠와 딸이 겪는 코믹한 사건이 채우지만 후반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건강이 악화된 딸과 아빠 사이에 견고해지는 사랑 이야기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차승원은 “모든 작품이 그렇듯, 내가 더 잘 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추석 연휴 차승원은 서울과 경기지역 극장을 직접 찾아 영화를 소개한다. “요즘은 부쩍 ‘집돌이’가 돼 동네 마트 정도만 오갈 뿐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 곁을 잠시 벗어나 관객과 더 자주 만난다.

“이럴 줄 알고 아버지 계신 곳에 미리 가서 별초하고 왔어요. 성묘하면서 (영화)잘 되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갈 때마다 부탁이죠. (웃음) 돌아가신 아버지께 늘 빛지고 사는 아들입니다. 부모자식 사이는 늘 빛의 연속인 듯해요. 아버지 생전 전 아들로는 별로였어요. 지금이라면 괜찮은 아들이 돼 드릴 수 있을 텐데.”

자식으로서선 아쉬움이 남지만 배우로서는 30년 동안 흔들림 없는 길을 닦아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수긍하지 않았다.

“지난날 저를 향해 한 마디 던진다면 ‘너 왜 그랬냐?’라고 묻고 싶어요. 온 좋은 줄 알고요. 하하! 50대가 되니 더 정신바짝 차리고 살려 합니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김상중



“오구탁 통해 악당들에게 통쾌한 한방…시원하게 대리만족 ‘그알’ 때문에 날 딱딱하게 봐…내 한계이면서 나만의 브랜드”

“라면과참기름이 싸웠어요. 라면이구속됐습니다. 참기름이고소했거든요.” 배우 김상중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대뜸 ‘아재 개그’를 날렸다.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나쁜 녀석들) 개봉을 앞두고 가는 곳마다 “소지섭과 소유진의 공통점은 성(姓)동일” 같은 아재 개그를 선보인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했다. 13년째 진행 중인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영향이다.

“그알’ 이미지의 영향인지 저를 딱딱한 사람으로 봐요. 아재 개그로나마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하!”

김상중이 오랜만에 출연한 영화 ‘나쁜 녀석들’은 2014년 OCN 드라마의 영화 버전이다. 범죄자들이 힘을 합해 더 악랄한 악당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김상중은 형사반장 오구탁 역을 맡고 마동석과 탐을 이뤄 여둠의 세력을 박살낸다.

“오구탁은 제 ‘최애’ 캐릭터입니다. ‘그알’을 통해 온갖 사회악을 접했지만 전달자이다보니 통쾌한 ‘한 방’은 날리지 못했어요. 오구탁을 통해 시원하게 대리만족했어요.”

김상중의 삶에서 ‘그알’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연기할 캐릭터를 정할 때도 “‘그알’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식한다.

“설령 악역을 맡더라도 타당성이 필요해요. 너무 회화적인 캐릭터는 거절합니다. 웃긴 연기를 하다 주말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오랜 기간 진행한 영향인지 김상중이 드라마에 출연할 때면 ‘그알이 떠오른다는 대중의 반응도 나온다. 그는 “연기한 30년 가운데 13년 동안 진행했으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그게 저의 한계이면서 저만의 브랜드”라고 했다.

영화에서 ‘나쁜 놈들’을 소탕하는 김상중은 사실 ‘그알’을 통해 현실 속 온갖 ‘나쁜 놈’을 지켜봐왔다.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는 그는 “다만 세상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경찰, 좀 더 좋은 정치인을 통해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김상중은 영화 홍보 일정은 물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연극 ‘미저리’ 무대에도 오른다. “추석 연휴가 마침 마지막 공연이라 부지런히 광화문을 오갈 것 같다”며 웃었다.

'타짜: 원 아이드 잭' 박정민



“타짜3는 1,2편이 구축한 스토리를 더 현실적으로 확장 출연 결심 자체가 큰 도전…매 순간 최선 다해 후회 없어”

“한 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배우 박정민은 단단한 어조로 ‘타짜: 원 아이드 잭’(타짜3)을 완성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물론이고 감독이나 스태프 모두 ‘타짜’ 시리즈를 보면서 꿈을 키운 영화인들”이라며 “1·2편보다 나은 영화를 만들거보다 그 세계를 이어가려는 한정의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일찍이 ‘동주’로 실력을 인정받고 ‘그것만이 내 세상’ ‘사바하’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한 박정민이지만 ‘타짜3’ 출연은 결심 자체로 “도전”이었다. 전편의 성공에 주변의 만류도 컸다. 가장 우려한 사람은 ‘동주’ ‘변산’을 함께한 이준익 감독. ‘박정민의 색깔과 ‘타짜’의 개성이 과연 맞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그런 감독님을 제가 설득했어요. 영화를 내놓은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후회도 없어요. ‘타짜’에 참여한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타짜3’는 1·2편이 구축한 ‘타짜’의 세계에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확장했다. 박정민이 맡은 주인공 도일출은 공무원 준비생이지만 타고난 승부욕으로 도박판을 기웃대다 결국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선다. 류승범, 이광수, 최유화, 우현 등 개성 만점 배우들도 뭉쳤다.

“학교 다닐 때부터 명성을 익히 들어온 연출자 권오광 감독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류승범 형님께는 촬영 전 편지를 썼죠. 순수한 제 마음을 담은 팬레터였어요. 첫 팬레터요? 대학 때 장진 감독님께 보낸 손편지였죠. 하하!”

글 쓰는 일은 그에게 익숙한 작업이다. 에세이를 펴낸 작가이기도 한 그는 얼마 전 서울 흥대 인근에서 작은 동네책방의 문을 열었다.

“밤늦도록 동네에 책 읽을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와 시작했어요. 조용히 책 읽는 공간으로 많이 좋아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박정민의 책방은 추석에도 문을 연다. 박정민도 책방을 지킬 생각이다. 관객이 ‘타짜3’를 본 뒤에 읽으면 좋을 책 한 권 추천해 달라고 하자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꼽았다. “해마다 또 노인이 돼서도 읽고 싶은 책”이라고 했다.

이해리 기자 gol024@donga.com